

제주도 농어촌 지역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시론적 연구

-애월읍 신엄마을을 사례로-

정 광 중¹⁾

A Contemporary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at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n Jeju Island

-Mainly Based on the Case of Shinum Village in Aewol-eup-

Jeong, Kwang-Joong¹⁾

요약 : 본 연구는 제주도 애월읍 농어촌지역 마을인 신엄마을을 사례로 마을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해당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시범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신엄마을의 자원을 발굴한 결과 자연자원은 9개, 인문자원은 12개 등 총 21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합해 12개의 자원이 비교적 자원가치가 높고 활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신엄마을의 여러 자원들 중에서도 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12개의 마을자원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마을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해당자원의 성격과 특성(10개 항목)을 포함하여 마을자원의 정의, 상징적 의미 및 마을주민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자원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비교적 정보를 얻기 용이한 신엄마을을 사례로 검토한 것이지만, 앞으로 제주도 내 다른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도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등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신엄마을, 자원발굴, 마을자원, 자연자원, 인문자원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at Shinum Village in the farming and fishing region of Aewol-eup on Jeju Isl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dentity for the villagers. Also, at the same time, it emphasizes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for the activation of the villag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at Shinum Village, a total number of 21 resources, including 9 natural ones and 12 cultural ones, have been found. It has been found that 12 of them, combining both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have a relatively higher value as resources, showing a possibility of utiliza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12 resources at Shinum Village,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current stage, a story-telling process has been applied. The objective of such a process for the resources at the village i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resources based on such factors as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10 categories), definitions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subject resources in addition to their connection with the villagers. Even if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Shinum Village where it is relatively easy to obtain information, it will be possibl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village resources through the cases of other villages on Jeju Island in the future.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회과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kj@jejunu.ac.kr

Key words : *Shinum Village,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Village Resources, Na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1. 서 론

지금까지 제주도의 마을연구는 지리학을 비롯하여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져 왔으며, 이들 개별 학문 분야에서는 제각기 주어진 연구주제의 성과를 나름대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마을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배경을 검토해 보면, 우선적으로 개별 학문 분야마다 마을단위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나 전통문화, 민속 그리고 마을 내에 존재하는 특이한 사회현상에 얽매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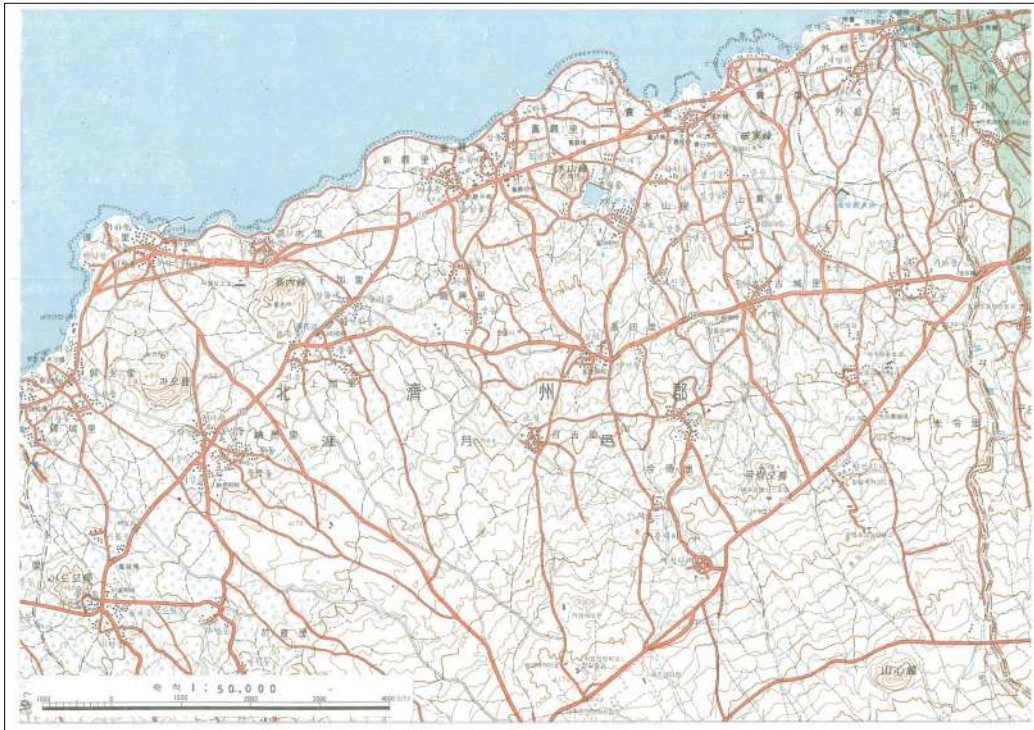
개별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진 마을연구에서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마을자원을 다룬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마을내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특징적인 사회현상 자체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의 속성이나 이행과정 혹은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부분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김혜민, 2006: 정광중·김은석, 2008: 김일립, 2011).

본고는 제주도의 마을, 특히 농어촌지역 마을의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마을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례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의 유용한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주요 마을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신엄마을은 해안선 주변의 자연자원과 마을 내부의 인문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굴은 물론이고 활용적 측면이 아주 미약한 마을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엄마을의 여러 자원은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의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도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엄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도내 다른 마을의 자원발굴과 활용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작은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신엄마을 개관

신엄마을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애월읍에 속하는 마을로서 독립된 법정리(法定里)이자 행정리(行政里)이다. 신엄마을은 본동, 서동(석동네), 윤남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동은 다시 큰동네, 안골, 벼룻골 등 작은 마을로 나누어진다. 신엄마을은 제주시 동지역의 중심부(시청)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엄리와 구엄리, 서쪽으로는 고내리와 애월리, 남쪽으로는 용흥리와 하가리와 인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면해 있는 해안마을이다(그림 1). 신엄마을은 약 550~600년 전에 남뜨(도)리와 엇저리 등지에 사



<그림 1> 신엄마을과 그 주변마을의 위치
자료 : 1 : 50,000 지형도

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남뜨리는 마을의 서쪽 해안지구로 마을포구인 남뜨리 포구가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1990대말 경에 개설된 해안도로를 따라 고내마을과 연결되는 곳이다. 옛저리는 마을 서쪽의 농경지가 전개되는 지구로 작은 농로를 따라 고내마을 내부와 연결되는 지구로서, 현재는 일부 지구에 펜션이 들어서 있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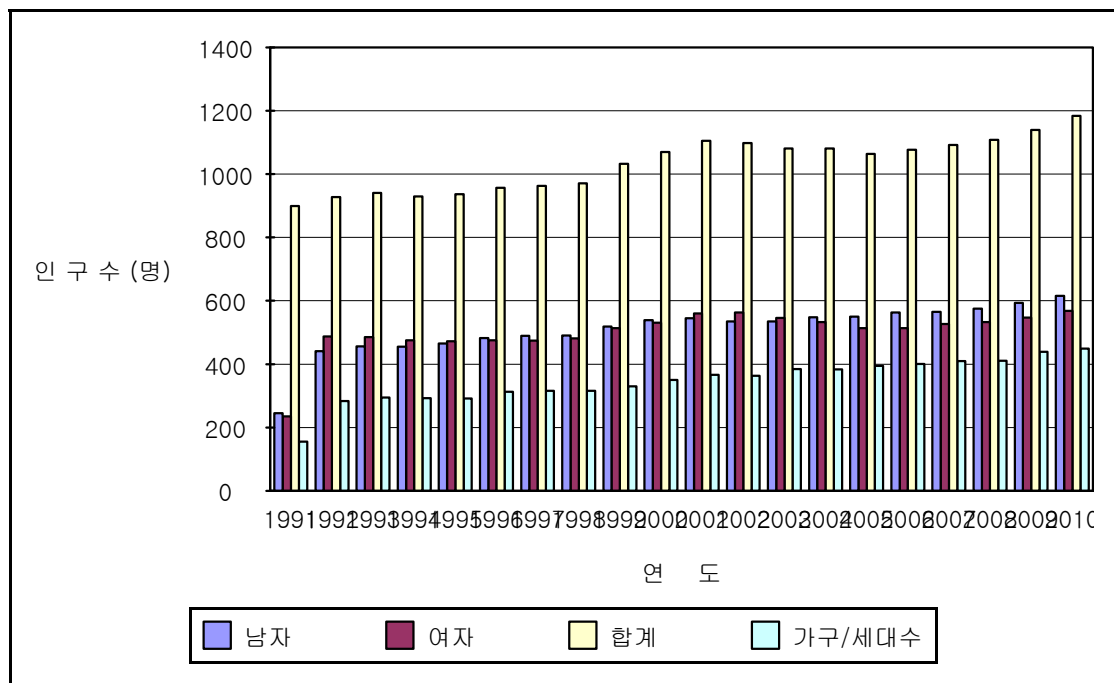
신엄마을은 보통 주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는 ‘새엄쟁이(新嚴莊伊)’이라 이름으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접하는 마을인 구엄마을(舊嚴里)을 ‘엄쟁이(嚴莊伊)’라 부르는 것과 구분해서 부르는 마을명이기도 하다. 제주도 옛 지도의 하나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이형상, 1702-1703년 제작) 내 「비양방록」(飛揚放鹿)에는 엄장포(嚴莊浦)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아울러 정조 연간에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 1780~1789년)의 행정구역에는 신우면(新右面) 22개리 중 구엄장리(舊嚴莊里), 중엄장리(中嚴莊里) 및 신엄장리(新嚴莊里)가 등장한다. 이로 볼 때, 신엄이나 구엄마을 주변지구에는 과거 엄장리(嚴莊里)라는 마을이 먼저 형성된 이후에 구엄, 신엄, 중엄마을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된다(오창명, 2007: 234).

오늘날 신엄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근간을 두고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수박과 양배추의 산지를 형성할 정도로 거의 모든 농가가 이들 상품작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작목과 함께 밤호박, 브로콜리를 도입한 농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수박생산은 2010년 현재 전체 경지 면적(201.7ha) 중 50%(약 100ha)에 육박하는 재배면적을 보이며, 겨울철 채소인 양배추는 전체 경지면적의 60%(120ha)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자랑한다. 이들 2개 상품작물은 제주도내 전체 생산량의 각각 60%와

30%를 담당할 정도로 집단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²⁾

신엄마을의 인구동향은 <그림 2>와 같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신엄마을의 인구는 1,184명(남: 616명, 여: 568명 / 449세대)을 보이는데, 이는 주변마을인 고내리(1,058명)를 비롯한 중엄리(580명), 구엄리(942명), 상가리(707명) 및 하가리(586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로 확인된다. 신엄마을의 인구를 최근 약 20년에 걸쳐 살펴보면, 대략 1990년대 말까지는 약 900~1000명 사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는 약 1000~1,150명 수준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나는 신엄마을의 인구증가는 주변지역의 다른 마을들이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내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들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초·중학교의 폐교 및 통합과 함께 마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마을발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신엄마을의 인구는 주변지역의 고내마을이나 구엄마을보다도 적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들 마을의 인구보다도 한층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엄마을의 인구증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수박과 양배추 등 상품작물에 전념하는 젊은 층 농가인구에 크게 좌우되는 한편, 1990년대 말에 개설된 해안도로를 따



<그림 2> 신엄마을의 인구수·세대수 변화(1991~2010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1990~2011)

라서 민박과 펜션 증가가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³⁾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마을 인구 중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결국 이점은 상품작물의 재배나 민박·펜션경영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인구들이 더 많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민박과 펜션경영은 200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입지는 마을 해안도로 변의 지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신엄마을의 자원 분포와 특징

신엄마을의 자원은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⁴⁾ 여기서 말하는 신엄마을의 자원이란 현실적으로 마을을 제주도 내외로 널리 알리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정광중, 2008: 79). 따라서 마을자원의 개념과 범위를 넓히면 상당히 많은 수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앞서 전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성이 큰 것들만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신엄마을의 자원 분포를 보면, 자연자원은 주로 해안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인문자원은 마을안과 해안 쪽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엄마을의 자원 분포의 배경에서는 신엄마을이 제주도 내에서도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표 1> 신엄마을의 자원 분포

자 원 자 원			인 문 자 원		
마을 내 명칭	학술적 개념 또는 용어	마을 내 위치	마을 내 명칭	학술적 개념 또는 용어	마을 내 위치
왕돌해안	암석해안	해안 / 동쪽	박씨 삼정문	정려각	마을 내 동작거리
불레낭기정	해식애	해안 / 중앙	진수리 포제단	포제단	섯(서)동네
석지와당	해식애	해안 / 중앙	송씨할망당	본향당	당동네(거리)
암무기괴	해식애 및 해식동굴	해안 / 동쪽	답단이 돌탑	방사탑	큰동네 (증숫물)
노꼬물	해안 용천수	해안 / 동쪽	돌방애 (연자마)	정미용 농기구	당동네(거리)
소물(남탕)	해안 용천수	해안 / 동쪽	남두연대	연대(봉수)	해안 / 중앙
남뜨(도)리물	해안 용천수	해안 / 서쪽	성담	환해장성	해안 / 동쪽
윤남못	내륙 습지	윤남동	돌코냉이	방사용 짐승	신엄중 교문 앞
진수리물	내륙 습지	섯(서)동네	남뜨(도)리개	포구	해안 / 서쪽
—	—	—	암무기개	포구	해안 / 동쪽
—	—	—	암무기불턱	해녀탈의장	해안 / 동쪽
—	—	—	폭낭알(썰터)	정자목	자연마을 단위로 다수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마을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자원 중에서 마을 내에 위치하는 2개의 습지는 1970년대까지 많이 남아있던 여러 개의 습지들 중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자원 중에서 해안가에 위치하는 것들은 조선시대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던 연대(烟臺)와 왜구(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환해장성(環海長城), 그리고 2개의 포구 및 해녀탈의장 등으로 바다와 연관성을 맺는 것으로 구성된다.

신엄마을의 자원 중에서도 그나마 형성시기가 명확한 것은 대부분이 인문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가령 박씨 삼정문(정려각)을 비롯하여 남두연대(연대: 봉수시설)와 성담(환해장성), 진수리 포제단, 담단이 돌담(防邪塔)과 돌코냉이(방사용 짐승, 돌고양이), 암무기불턱(해녀탈 의장)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시대 중·후기 이후에 조성된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담은 고려말~조선시대 초기에 걸쳐 왜구나 이양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쌓은 돌담의 흔적으로, 고려 말 특정 시기에는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이 차례로 보수하며 활용했다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다(제주도, 1996: 130-131). 암무기불턱은 최초의 조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돌담을 쌓은 것은 대략 1950년대 이후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돌담 틈새를 시멘트로 막은 흔적은 1970년대 초로 파악된다.

여러 인문자원들 중에서도 조성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송씨할망당(本鄉堂), 남뜨리개와 암무기개, 물방애(연자마: 정미용 농기구) 등은 신엄마을의 설촌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씨할망당은 신엄마을의 마을신을 모신 곳으로, 주로 부녀자들이 새벽녘에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제주도 내에서도 설촌이 오래된 마을에는 반드시 본향당이 존재하며, 당신(堂神)의 기원은 제주도 내 최고(最古)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송당리(松堂里) 본향신(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금백조)과 연계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2008: 225). 2개의 포구 중 마을의 주 포구라 할 수 있는 남뜨리개는 마을주민들 중에서도 어업을 겸업으로 하는 일부 주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포구로서,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겸업농가들이 연안어업의 활동기지로 삼아왔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어업은 쇠락하여 현재는 극히 일부 주민들의 여가용 보트를 메어두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은 떨어진 상태이다. 암무기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자리돔과 쥐치를 잡는데 사용했던 통나무배인 '태우'를 메어두는데 사용했던 작은 포구로 현재는 방치된 상태이다. 정미용 농기구인 물방애는 현재 애월읍 하가리의 말방아(제32-1호)와 함께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32-2호(1975년 10월 13일 지정)로 지정·관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132).

이들 자원은 신엄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공동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이들 자원은 일부 특정집단, 가령 어업을 겸업으로 삼는 주민들이나 보다 작은 자연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마을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연자원은 형성시기를 거의 가늠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지질연대 상의 개략적인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형성과정은 크게 4단계 또는 5단계설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기존의 학설 중 제주도의 해안선을 거의 확정짓는 표선리현무암의 분출 시기는 제2단계로 대략 30만년~60만 년 전을 상정한다. 지질학계에서는 이 시기에 제주도의 용암대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신엄마을의 해안선도 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엄마을의 속칭 '암무기'에서 '석지와당'에 이르는 구간에는 상당히 많은 용암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강순석, 2004: 39-40). 따라서 곳곳에 해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또한 일부 구간에는 용암이 흐른 이후에 해식동굴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속칭 불레낭기정 주변은 용암층이 40여m에 이를 정도로 두껍게 쌓이면서 수직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왕돌해안은 말 그대로 왕돌 모양의 큰 원력(圓礫)으로 구성된 암석해안을 가리키는데, 암석이 전개되는 구간은 최초에 해식애를 형성하던 구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지고 그 후에 다시 파식작용에 의해 둥그런 원력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다. 제

주도 내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 원력의 암석해안을 이루는 구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리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자연자원 중에서도 신엄마을의 용천수는 3개소로, 해안 동쪽의 노꼬물과 소물(남탕), 서쪽의 남뜨리물로 구분된다. 이들 중 노꼬물은 용출량이 가장 풍부하고 그나마 접근도가 좋아 1970년대 초까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용천수이다. 소물과 남뜨리물은 주로 여름철에 남성들의 목욕물로 활용되던 용천수이다.⁵⁾ 그러나 신엄마을의 용천수는 1990년대 이후 중산간 지역에 많은 수의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용출량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주요 마을자원의 가치 평가와 스토리텔링

이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신엄마을의 주요 마을자원을 나름대로 정해진 틀에 의해 평가하고, 각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의미와 가치 부여(스토리텔링)를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을자원의 가치평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시범적인 차원에서 행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원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엄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확정짓고, 나아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마을자원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신엄마을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에 대한 평가지표를 ① 마을 상징성(대표성), ② 마을 정체성, ③ 활용 가능성, ④ 접근성 등 4가지로 설정하고, 각 지표의 최고 점수를 5점, 최하 점수를 1점으로 정한 후 총점 결과를 평가의 비교 치로 삼았다. 즉, 4가지 평가지표의 최고점을 받은 자원은 총 20점, 그리고 모든 평가지표의 최하점을 받은 자원은 총 4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된다. <표 2>와 <표 3>은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각각 4가지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화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러 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필자의 현지조사와 일부 마을주민들의 구두 상 평가결과만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나, 신엄마을의 자원을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표 2>의 자연자원의 평가에서는 왕돌해안이라 부르는 암석해안이 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 노꼬물(용천수), 석지와당(해식애), 남뜨리물(용천수), 불레낭기정(해식애), 암무기괴(해식애 및 해식동굴)가 10점 이상으로, 신엄마을의 입장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연자원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자원인 윤남못(내륙습지), 소물(용천수) 및 진수리못(내륙습지)은 현지점에서 평가할 때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요한 자원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의 인문자원들 중에서는 박씨 삼정문이 1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어서 진수리 포제단(14점)과 송씨할망당(14점), 남두연대(13점), 답단이 돌탑(12점), 몰방애(11

<표 2> 자연자원의 평가

평가지표 자 원	학술적 개념 또는 용어	마을 상징성 (대표성)	마을 정체성	활용 가능성	접근성	계
왕돌해안	암석해안	5	4	5	5	19
노꼬물	해안용천수	3	3	4	5	15
석지와당	해식애	4	3	3	3	13
남뜨(도)리물	해안용천수	2	2	3	5	12
볼레낭기정	해식애	5	3	2	1	11
암무기괴	해식애 및 해식동굴	3	2	3	2	10
윤남못	내륙습지	1	2	3	3	9
소물(남탕)	해안용천수	1	1	1	5	8
진수리물	내륙 습지	1	1	1	5	8

자료 : 현지답사 · 일부 마을주민들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해 작성.

<표 3> 인문자원의 평가

평가지표 자 원	학술적 개념 또는 용어	마을 상징성 (대표성)	마을 정체성	활용 가능성	접근성	계
박씨 삼정문	정려각	5	5	4	5	19
진수리 포제단	포제단	3	3	3	5	14
송씨할망당	분향당	3	3	3	5	14
남두연대	연대	3	2	3	5	13
답단이 돌탑	방사탑	2	2	3	5	12
물방애 (연자마)	정미용 농기구	2	2	2	5	11
성담	환해장성	1	1	2	5	9
남뜨(도)리개	포구	1	1	2	5	9
돌코냉이	방사용 짐승	1	1	1	5	8
폭낭알(쉽터)	정자목	1	1	2	5	9
암무기개	포구	1	1	1	4	7
암무기불턱	해녀탈의장	1	1	1	3	6

자료 : 현지답사 · 일부 마을주민들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해 작성.

점) 등에 높은 점수가 부과되고 있다. 이외에 비교적 낮은 평가점수가 부과되는 성담 등 6개 자원은 현지점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신엄마을 자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신엄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마을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은, 자연자원에서는 왕돌해안, 노꼬물, 석지와당, 남뜨리물, 불레낭기정, 암무기괴 등 6개, 인문자원에서는 박씨 삼정문을 비롯하여 진수리포제단, 송씨할말당, 남두연대, 답단이 돌담, 물방애 등 6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12개의 자원 모두를 현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는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자연자원 중 불레낭기정은 경관미가 뛰어난 지형자원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주변의 해안도로 변에서도 감상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형적 경관미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감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접근도 면에서는 암무기괴도 다소 위험상황이 뒤따르며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감상하거나 체험활동을 하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문자원에서는 남두연대가 지방문화재(기념물, 제23-7호, 1976년 9월 9일 지정)로 지정 보호되고 있고, 물방애도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활용도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들 자원이 접근성에서 다소 어렵고 또한 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자원이 위치하는 근거리에서의 단순적 활용 즉 자원 그 자체를 감상하거나 트레일 코스에서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자원의 스토리텔링

여기서는 앞서 여러 마을자원의 가치평가를 통해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조사시점에서 볼 때 신엄마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과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자원의 성격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자원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거론한 마을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해당자원의 성격과 특성을 전제로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왕돌해안(그림 3)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암석해안(岩石海岸)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 속칭 암무기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1~2m
- ④ 용도 : 특별히 없음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해식단애의 붕괴 및 파식작용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⑩ 지정번호 : 없음

- ㉞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 속칭 암무기 지경에 약 400m 구간에 걸쳐 크고 작은 둥그런 암석들로 구성된 암석해안을 말하며, 암석의 크기는 직경 15~100cm까지 다양하다.
 - ㉡ 상징적 의미 : 신엄마을을 대표하는 해안경관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마을바다와 더불어 해안의 경관미를 높이는 자연자원이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초반에는 도로 포장용 골재로 많은 양의 왕돌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하편 1990년대 중반 경에 개설된 해안도로로 인하여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이곳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 통나무배인 떼배(테우)의 전용 포구가 있었다.



<그림 3> 왕돌해안(암석해안)

(2) 노꼬물(그림 4)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용암류 경계에서 흘러나오는 해안 용천수(海岸 湧泉水)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 속칭 노꼬물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1.8~4.9m
- ④ 용도 : 1970년대 중반까지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화산지형의 특성에 따른 지하수의 용출에 의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2000년대 중반 주변시설 수리)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 속칭 노꼬물 지경에서 솟아나는 해안 용천수를 말하며, 비교적 용출량이 많고 솟아나는 지점은 상하 2개소이다.
- ㉡ 상징적 의미 : 신엄마을 주민들이 설촌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오랜 세월 사용했던 주요 식수원이자 생활용수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이다. 더불어 노꼬물은 마을여성들에 있어 희로애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특히 신엄마을 여성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식수용 물을 길러올 정도로 용출량이 풍부하고, 이 물을 이용하여 마을여성들은 빨래는 물론 목욕까지 즐겼다.



<그림 4> 노꼬물(해안 용천수)

(3) 석지와당(그림 5)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해식애(海蝕崖)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중앙부 속칭 석지와당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약 17~18m
- ④ 용도 : 특별히 없음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시기가 서로 다른 용암류의 퇴적작용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인접하는 곳에 소로를 시멘트화)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중앙부(속칭 석지와당 지경)에 위치하는 해식애로, 시기가 서로 다른 용암류가 두꺼운 층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 ㉡ 상징적 의미 : 두꺼운 용암류가 퇴적되어 형성된 해식애로 하단부에 위치한 소규모

의 용암동굴과 함께 여러 시기의 용암류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주변바다와 더불어 경관미가 빼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㉔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과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바로 앞 바다에서는 해녀들의 물질작업을 비롯하여 해산물 채취, 낚시 등을 즐기던 곳이다. 그리고 석지와당이 이어지는 물에서는 과거 1970년대 중반까지도 소나 말을 방사하여 풀을 뜯게 하던 장소였다.



<그림 5> 석지와당(해식애)

(4) 남뜨(도)리물(그림 6)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용암류 경계에서 흘러나오는 해안 용천수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서쪽 속칭 남뜨(도)리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1~-1m
- ④ 용도 : 여름철 목욕용 및 해수욕용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화산지형의 특성에 따른 지하수의 용출에 의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㉑ 지정번호 : 없음
 - ㉒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용천수로 이어지는 주변은 시멘트화)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㉑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서쪽 속칭 남뜨(도)리 지경에 위치하는 해안 용천수로, 용암류와 용암류사이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 ㉒ 상징적 의미 : 남뜨(도)리물은 신엄마을에 분포하는 3개의 용천수 중 하나로, 용출량도 비교적 풍부하여 마을 동쪽의 노꼬물과 함께 보배적인 존재이다.
 - ㉓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남뜨(도)리물은 특히 여름철에 남녀노소가 목욕을 하거나 해수욕을 즐기고 난 후 샤워용 물로 많이 활용돼 왔으며, 현시점에도 과거

보다는 못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용천수이다. 더불어 일부 서동(섯동네) 주민들은 남뜨(도)리물을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림 6> 남뜨(도)물(해안 용천수)

(5) 불레낭기정(그림 7, 그림 8)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해식애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중앙부 속칭 불레낭기정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약 35m
- ④ 용도 : 여름철 목욕용 및 해수욕용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시기가 서로 다른 용암류의 퇴적작용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주변을 일정한 높이로 돌담을 쌓음)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중앙부(속칭 불레낭기정 지경)에 위치하는 해식애로, 시기가 다른 용암류가 두꺼운 층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 ㉡ 상징적 의미 : 불레낭기정은 마을 내에서도 가장 험악하고 가장 높은 절벽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그만큼 크다. 40여m에 이르는 수직 절벽은 해안가 쪽에서 보면 자연의 오묘함을 느끼게 하는 지형 경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불레낭기정은 신엄 마을 해안에서 최고점을 이루는 곳으로 과거에는 거의 접근을 하지 않던 곳이다. 다만 주변지구에서는 석지와당 지경과 더불어 1970년대 중반까지 소와 말을 방목하던 곳이다. 그리고 불레낭 가정을 정점으로 하여 주변지구는 바다 쪽으로 벼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혹 소나 말이 전락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한 수단으로 당시 주변지구에는 약 1~1.2m 정도의 돌담을 쌓고 또 소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그림 7> 불레낭기정 1(해식애)



<그림 8> 불레낭기정 2(해식애 하단부)

(6) 암무기괴(그림 9, 그림 10)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해식애 및 해식동굴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 속칭 암무기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약 13~14m
- ④ 용도 : 일부주민들의 여름철 피서지(해식동굴 내에 작은 용천수가 있음)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불명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형성시기가 서로 다른 용암류의 퇴적작용과 파식작용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주변에 휴식공간과 계단이 만들어져 있음)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동쪽(속칭 암무기 지경)에 위치하는 해식애와 해식동굴로, 두꺼운 용암류가 두껍게 퇴적된 이후 파식작용을 받아 동굴이 형성된 것이다.
 - ㉡ 상징적 의미 : 암무기괴는 먼저 두꺼운 용암류의 퇴적에 의해 해식애가 형성되고 나서 다시 해식동굴이 형성된 곳으로, 해식사면의 거의 70%의 높이까지 동굴이 형성돼 있다. 아직도 학계에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해식동굴이며, 또한 주변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해식동굴이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암무기괴의 해식동굴은 여름철 남성들의 피서공간으로 또는 목욕공간으로 이용돼 왔다. 해식동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암무기괴는 인접하는 중엄·구엄리 해안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제멋으로, 종종 지역 화가들의 피사체가 되기도 한다.



<그림 9> 암무기괴(해식애)



<그림 10> 암무기괴(해식동굴)

(7) 박씨 삼정문(朴氏 三旌門)(그림 11)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정려각(旌閤閣)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본동(안골) 내 동삭거리(삼거리)
- ③ 해발고도(표고) : 32m
- ④ 용도 : 조선시대의 효자, 열녀, 충비 등 세 사람의 공적을 기리기 위함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18C 말(1794년 최초 건립)
- ⑥ 관련인물 : 박계곤(효자)과 그의 딸 박씨(열녀), 딸의 몸종 고소락(충비)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박계곤(朴繼崑)은 제주목의 진상품을 싣고 한양을 향해 떠났다가 사서도(斜鼠島: 전남 해안의 작은 섬) 부근에 표류하게 되자 부모에게 이별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가 글을 쓴 판자조각을 발견하면서 표류자 모두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박계곤의 효성이 지극한 탓으로 하늘이 도운 것이라 하여 후대에 알려지면서 제주목사에 의해 정려 대상이 되었다(김찬흠, 2002: 243). 박계곤의 막내 딸 박씨는 신엄리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 한 지 얼마 없어 남편 이항춘(李恒春)이 죽게 되자 끝까지 수절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정절부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몸종인 고소락(高所樂)은 박씨의 절행을 듣고 수절하는 박씨에게 찾아가 자신도 죽을 때까지 박씨를 받들며 살겠다고 간청하여 일생을 같이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세 사람의 품행과 효심,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정려하게 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⑩ 현재 상태 : 2000년 3월에 복원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정의 : 신엄리 내 한 자연마을인 본동(안골) 근처 삼거리에 위치해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정려각으로, 효자 박계곤과 그의 딸 열녀 밀양박씨 그리고 딸의 충비인 고소락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 상징적 의미 : 정려각은 유교를 통치수단으로 삼던 조선시대에 유교의 여러 지켜야 할 항목인 효(孝)나 충(忠) 등의 사상을 장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게 함으로써, 이상적인 유교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작은 건축물이다. 박씨 삼정문은 박씨 집안의 효자와 열녀 그리고 충비에 대한 효행과 절행을 널리 알리어 유교사상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박씨 삼정문이 건립돼 있는 곳은 마을 내에서도 삼거리로 신엄마을 주민들이 항상 지나다니며 바라볼 수 있는 길목이며, 또한 그 주변은 동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놀이공간으로 삼을 정도로 좋은 장소이다. 따라서 정려각의 존재는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항상 엄숙한 공간으로 가슴 속에 자리 잡아 왔다.



<그림 11> 박씨 삼정문(정려각)

(8) 진수리 포제단(— — 酬祭壇)(그림 12)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마을 포제단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본동(섯동네) 속칭 진수리 동산 지경

③ 해발고도(표고) : 43m

④ 용도 : 1년에 한번 씩 마을제를 지내는 장소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조선시대 중기 이후

⑥ 관련인물 : 없음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마을민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건립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지정번호 : 없음

- ㉞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주변 시설은 2005년 정비, 비각은 2006년 3월 건립)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㉟ 정의 : 신엄리 내 한 자연마을인 본동(엇동네) 근처 속칭 진수리 동산에 위치해 있는 마을제의 장소로서, 제사는 매년 여름에 1번씩 지낸다.
 - ㊱ 상징적 의미 : 포제단에서 지내는 포제는 유교식 마을제사로서 제의 행위는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마을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따라서 포제는 유교사상과 남성 중심 사상이 결부되어 나타난 조선시대 식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㊲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신엄마을의 포제는 1970년대 초까지 이어져 오다가 1980년대까지 잠시 중단되었고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다시 재개되었다. 현재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2005년에 포제단과 그 주변을 말끔하게 단장함과 동시에 정비와 관련된 비석 등도 세웠다.



<그림 12> 진수리 포제단(포제단)

(9) 송씨할망당(宋氏--堂)(그림 13, 그림 14)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신당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본동 속칭 당거리 지정
- ③ 해발고도(표고) : 33m
- ④ 용도 : 1년에 한번 씩 당제를 지내는 장소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550~600여 년 전(마을 설촌 역사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
- ⑥ 관련인물 : 송씨할망(좌정한 신)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인접하는 구엄리에서 가지를 갈라왔다고 전해짐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주로 마을여성들에 의해 가정의 화복과 산육, 치병 등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㉟ 지정번호 : 없음

- ㉞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양호(1980년대에 부분 정비)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㉟ 정의 : 신엄리내 한 자연마을인 본동 속칭 당거리에 위치하는 마을 본향당으로, 주로 마을 여성들에 의해 가정의 화복, 산육, 치병 등을 기원하는 신당이다. 정해진 제일(祭日)은 매 7일로 일월당의 성격을 띠며, 모셔져 있는 신은 브름웃또 송씨할망(여신), 브름알또 짐씨영감(남신)이다. 신체(神體)는 팽나무이다(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222).
- ㊱ 상징적 의미 : 신엄 마을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이 정해진 제일을 중심으로 제의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포제가 남성 중심의 유교사상이 배경에 짙게 깔려 있다고 전제할 때 다분히 외래적이고 외세적 성격이 강한 반면, 마을 당신앙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고 또 제주도 내의 당신이 송당리의 본향신(웃손당 백주할망당)을 중심으로 온 섬으로 확산·전파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생적이고 자연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㊲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대개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마을 본향당을 ‘당’ 또는 ‘당집’이라 칭하며, 집안의 어머니나 할머니드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원하는 장소이다. 송씨할망당은 신엄마을의 설촌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신 자체는 구엄마을에서 전파된 형태이기 때문에 마을간 생활 교류적 성격도 강하다.



<그림 13> 송씨할망당 1(신당)



<그림 14> 송씨할망당 2(신위 및 제단)

(10) 남두연대(南頭烟臺)(그림 15)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조선시대 통신수단인 연대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2780-1외 2필지(마을 해안 중앙부 속칭 오성돌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30m
- ④ 용도 : 조선시대 때 연기나 횃불로 왜구나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수단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조선시대 중기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나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가 높은 지점에 인위적으로 설치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제주도지방기념물로 지정
 - ㉠ 지정번호 : 제23-7호
 - ㉡ 지정 연월일 : 1976년 9월 9일
- ⑩ 현재 상태 : 양호(1977년 복원 정비)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마을 해안 중앙부 속칭 오성돌 지경(2780-1번지 외)에 위치하는 조선시대의 봉수시설이다.
 - ㉡ 상징적 의미 : 조선시대 때 제주도의 해안방어를 위해 신엄리 해안 속칭 오성돌 지경에도 봉수시설인 남두연대를 설치했는데, 이는 제주도내 해안에 설치한 38개 연대 중 하나이다. 남두연대는 애월진(涯月鎭) 소속하에 있었으며,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나 왜적의 1차 방어기능과 함께 내륙(애월진과 제주목관아) 쪽으로 적의 동태를 알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신수단이었다(제주도, 1996: 220).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조선시대 때 설치한 군사 시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봉군(烽軍) 등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봉수기능이 끝나가는 시점인 갑오개혁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는 크게 별다른 활용은 없었고, 제주 4·3사건이 발발한 당시 일시적이지만 망대로, 또 그 이후 1970년대 초·중반 경까지는 주변지구예 소나 말을 방목하면서 가축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림 15> 남두연대(봉수시설)

(11) 담단이 돌탑(———塔)(그림 16)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액막이용 방사용 돌탑(방사탑)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본동(큰동네) 속칭 중숫물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31m
- ④ 용도 :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액운을 막기 위한 시설임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조선시대 중기 이후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마을내의 허(虛)한 곳으로부터 나쁜 액운이나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주민들의 힘을 합해 세움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비지정
 - ㉠ 지정번호 : 없음
 - ㉡ 지정 연월일 : 없음
- ⑩ 현재 상태 : 상부가 일부분 허물어짐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의 한 자연마을인 큰동네 속칭 중숫물 지경에 위치하는 액막이용 돌탑으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마을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 ㉡ 상징적 의미 : 방사(액막이)용 돌탑은 제주도 내의 여러 마을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용 돌탑은 의료·보건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자연의 힘에 의지하고자 했던 마을주민들의 소박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이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최초에 방사용 돌탑은 마을주민들의 결의에 의해 세우는 것이고, 그 방위나 장소 등을 정하는 데는 마을의 리더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신엄마을의 방사용 돌탑은 현재 1기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방사용 고양이, 개, 소, 말 등의 돌짐승을 만들어 마을 어귀에 세웠다(강정효, 2008: 165). 그만큼 신엄마을 주민들은 마을내로 잡귀나 나쁜 기운이 들어와 병이 나돌거나 혹은 전통과 풍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담단이 돌탑(방사탑)

(12) 돌방애(말방아, 연자마)(그림 17)

- ① 자원의 학술적 정보 : 농작물 정미용 농기구
- ② 위치(소재지) : 신엄리 본동 속칭 당거리 지경
- ③ 해발고도(표고) : 34m
- ④ 용도 : 보리나 조 등을 정미하는데 사용하는 대형 농기구

- ⑤ 형성시기(조성시기) : 최초 1887년 전후 조성, 1928년 수리, 1967년 시멘트 수리(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2008: 883)
- ⑥ 관련인물 : 없음
- ⑦ 관련 실화·전설·설화 : 없음
- ⑧ 형성배경·역사적 배경(또는 나타나게 된 이유) : 자연마을의 10~20여 호를 기준으로 보리나 조를 정미하기 위해 물방애계를 조직하여 설치함.
- ⑨ 문화재 지정여부 :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 ㉠ 지정번호 : 제32-2호
 - ㉡ 지정 연월일 : 1975년 10월 13일
- ⑩ 현재 상태 : 양호(정기적으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⑪ 자원의 정의·상징적 의미·마을(주민)과의 관련성 :
 - ㉠ 정의 : 신엄리 본동 속칭 당거리 지경에 위치하는 정미용 대형 농기구이다.
 - ㉡ 상징적 의미 : 물방애는 자연마을 단위로 계(契)를 조직하여 설치하며, 또한 일정한 공동체의 규율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방애는 제주도 마을의 협동정신 또는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 ㉢ 마을(주민)과의 연관성 : 물방애는 현대식 정미소 내지 정미시설이 없던 시절, 보리나 조 등을 정미하기 위한 농기구이기 때문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도 농어촌 지역의 제주도민들은 1~2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보리나 조를 정미해야 했다. 물방애를 이용하여 정미할 때는 소나 말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기도 했다. 신엄마을에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 총 14기가 남아 있었으며, 한 집안의 곡물을 정미할 때는 가족 모두가 정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림 17> 물방애(연자마)

5.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애월읍 농어촌지역 마을인 신엄마을을 사례로 마을내의 자원을 적극적

으로 발굴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해당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시범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엄마을의 자원을 발굴한 결과 자연자원은 왕돌해안, 노꼬물, 석지와당, 남뜨리물, 불레낭기정, 암무기괴, 윤남못, 소물, 진수리물 등 9개, 인문자원은 박씨 삼정문, 진수리포제단, 송씨할망당, 남두연대, 답단이 돌탑, 물방애(발망아), 성담, 남뜨리개, 돌코냉이, 폭낭알(썰터), 암무기개, 암무기불턱 등 12개 등 총 21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자연자원에서는 왕돌해안, 노꼬물, 석지와당, 남뜨리물, 불레낭기정, 암무기괴 등 6개, 인문자원에서는 박씨 삼정문, 진수리 포제단, 송씨할망당, 남두연대, 답단이 돌탑, 물방애 등 6개가 비교적 자원적 가치가 높고 활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로, 이상에서 발굴한 여러 자원들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12개의 마을자원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마을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해당자원의 성격과 특성(자원의 학술적 정보, 위치, 용도, 형성시기 및 조성시기, 관련인물, 문화재 지정여부 등 10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마을자원의 정의, 상징적 의미 및 마을(주민)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자원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여기에서 제시한 마을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한 가지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마을주민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내용을 보태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신엄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마을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마을자원을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엄마을의 리더(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등)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의 자원개발과 활용을 전제한 하드웨어적 요소만을 제시한 상태로, 여기에다 소프트웨어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보를 얻기 용이한 신엄마을을 사례로 소개한 것이지만, 앞으로 제주도 내 다른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도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등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

- 1) 신엄리 노인회장 백○○씨(74세)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 2) 신엄리 마을이장 현○○씨(48세)로부터 청취조사에 의한 것이다.
- 3) 마을주민들의 청취조사에 따르면 민박 및 펜션 경영자들은 일부 신엄마을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지(제주도내 및 육지부 출신)에서 들어온 주민들이라 한다.
- 4) 자원의 개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인적자원과 농·수산 자원 및 토지자원(경지)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5) 여성들의 목욕과 빨래는 식수용인 노꼬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아래쪽 지점에 일정한 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했다.

■ 참고문헌

-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박물관.
- 강정효, 2008, 제주거옥대, 도서출판 각.
- 김일림, 2011, “서울 중랑 옹기마을의 사례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2), 한국사진지리학회, 77-87.
- 김찬흡, 2002, 제주인명사사전, 제주문화원.
- 김혜민, 2006, “농촌마을의 마을자원 활용 현황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 207-210.
-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해정명사·제주시 편),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형상, 1702-1703,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정광중, 2008, “제주도의 마을 :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는 공간”, 2008년 교원 박물관 연수교재, 국립제주박물관, 79-89.
- 정광중·김은석, 2008, “북촌리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따른 돌문화 관련자원의 형성과 배경”,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8(1), 한국사진지리학회, 7-25.
- 제주도,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 제주읍지(濟州邑誌), 정조 연간(1780-1789).
- 제주특별자치도, 1990-2011,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 탐방, 도서출판 광문당.